

* 1주차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¹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서 도덕 행위자와 도덕 피동자로 구분된다. ²도덕 행위자는 도덕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다. ³반면에 도덕 피동자는 영유아처럼 이성이나 자의식 등이 없기에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⁴그럼에도 영유아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영유아라고 해도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는 감응력이 있기 때문이다. ⁵쾌락이나 고통을 느끼기에 그것을 좇거나 피하려고 한다는 도덕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⁶싱어와 커루더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감응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는다. ⁷싱어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응력이 있으므로 동물도 도덕 공동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⁸반면에 커루더스는 고차원적 의식을 감응력의 기준으로 보아 동물을 도덕 공동체에서 제외하는데,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영유아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다. ⁹영유아는 언젠가 그런 의식이 나타날 것이므로 잠재적 구성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¹⁰그러나 문제는 그런 잠재성도 없는 지속적이고 비가역적인 식물인간의 경우이다. ¹¹식물인간은 고차원적 의식은 물론이고 감응력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도덕적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¹²식물인간을 흔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식물인간이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행동주의적 관찰 때문이다. ¹³이런 관찰은 식물인간이 그 자극에 대한 질적 느낌, 곧 현상적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¹⁴어떤 사람이 현상적 의식이 없는 경우 그는 감응력이 없을 것이다. ¹⁵그런데 거꾸로 감응력이 없다고 해서 꼭 현상적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¹⁶즉, 현상적 의식과 감응력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¹⁷외부 자극에 좋고 싫은 적극적인 의미가 없어도 어떠한 감각 정보가 접수된다는 수동적인 질적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¹⁸반면 감응력은 수동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런 정보를 바라거나 피하고 싶다는 능동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¹⁹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는지에 신경 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감응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는 철학자들은 여기에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²⁰행동주의적 기준으로 포착되지 않는 심적 상태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²¹그렇다면 감응력이 없고 현상적 의식만 있는 식물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닐까? ²²도덕적 고려는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가 그 존재와 맺는 구체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도 있다. ²³다양한 존재들은 일상에서 상호작용하는데, 도덕 공동체의 가입 여부는 그러한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²⁴그러나 이런 관계론적 접근은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종이나 성별을 우선해서 대우하는 차별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 ²⁵그리고 똑같은 식물인간이 구체적 관계의 여부에 따라 도덕 공동체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않기도 하는 문제도 생긴다. ²⁶결국 식물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려면 식물인간에게서 도덕적

으로 의미 있는 속성을 찾아야 한다.

²⁷감응력이 전혀 없이 오직 현상적 의식의 수동적 측면만을 가진 사람, 즉 ‘감응력 마비자’를 상상해 보자. ²⁸그는 현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못에 발을 짚었을 때 괴로워하거나 비명을 지르지는 않는다. ²⁹그러나 안전한 상황에서 걸을 때와는 달리 발에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접수할 것이다. ³⁰이런 상태는 얼핏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에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³¹하지만 감응력 마비자는 사실상 감응력이 있는 인간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 준다. ³²예컨대 컴퓨터 자판을 오래 사용한 사람은 어느 자판에 어느 글자가 있는지를 보지 않고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³³이 사람은 특별한 능동적인 주의력이 필요한 의식적 상태는 아니지만, 외부의 자극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 접수되는 정도의 수동적인 의식적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³⁴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상태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³⁵Ⓣ 이와 마찬가지로 식물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관적 의식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이는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도 도덕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 ② 도덕 피동자는 능동적인 주의력은 없지만 수동적인 의식적 상태는 있다.
- ③ 관계론적 접근에서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 ④ 식물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극에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 ⑤ 식물인간은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2. 현상적 의식과 감응력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응력 마비자’는 현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② 감응력은 정보 접수적 측면은 없지만 능동적 측면은 있다.
- ③ 현상적 의식과 달리 감응력은 행동주의적 기준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 ④ 커루더스는 현상적 의식이 있지만 감응력이 없는 존재를 고차원적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싱어는 감응력 없이 현상적 의식의 상태에 있는 대상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3. ㉠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응력이 있는 현상적 의식을 가진 존재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면 고통과 쾌락을 덜 느끼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지 않을까?
- ② 도덕 피동자가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없더라도 도덕 행위자는 도덕 피동자에게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하는 것 아닐까?
- ③ 외부의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의식적 상태는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는지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에 도덕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
- ④ 식물인간의 도덕적 고려 여부는 식물인간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⑤ 일상에서 특별한 능동적인 주의력이 필요한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 접수되는 정도의 의식적 상태가 아닐까?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¹첨단 소재 분야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이 필요하다. ²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³다만 광학 현미경은 관찰의 매체로 가시광선을 사용하고 유리 렌즈로 빛을 ㉠ 집속하는 반면, 전자 현미경은 전자빔을 사용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한 자기 렌즈로 전자빔을 집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⁴광학 현미경은 시료에 가시광선을 비추고 시료의 각 점에서 산란된 빛을 렌즈로 집속하여 상(像)을 만드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세한 구조를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 ⁵일반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은 점광원에서 나온 빛은 렌즈를 통과하면서 회절 현상*에 의해 광원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는 원형의 간섭무늬를 형성하는데 이를 '에어리 원반'이라고 부른다. ⁶만약 시료 위의 일정한 거리에 있는 두 점에서 출발한 빛이 렌즈를 통과할 경우 스크린 위에 두 개의 에어리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 두 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두 에어리 원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반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아지면 관찰자는 더 이상 두 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⁷이 한계점에서 시료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해상도'라 부른다. ⁸일반적으로 현미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해상도는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 렌즈의 초점 거리에 비례하며 렌즈의 직경에 반비례한다. ⁹따라서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최소 해상도가 작아지며, 더 또렷한 상을 얻을 수 있다. ¹⁰광학 현미경의 경우 파장이 가장 짧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더라도 그 해상도는 파장의 약 절반인 200nm보다 작아질 수가 없다. ¹¹반면 전자 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빔의 전자도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파동 이중성'에 따라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이 파동을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한다. ¹²물질파의 파장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인

운동량에 반비례하는데 전자 현미경에서 가속 전압이 클수록 전자의 속도가 크고 수십 kV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대략 0.01nm 정도이다. ¹³하지만 전자 현미경의 렌즈의 성능이 좋지 않아 해상도는 보통 수 nm이다.

¹⁴전자 현미경의 렌즈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전자의 이동 경로를 휘게 하여 전자를 모아 준다. ¹⁵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속도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데 그 방향은 자기장에 대해 수직이다. ¹⁶전자 렌즈는 코일을 적절히 ㉡ 배치하여 특별한 형태의 자기장을 발생시켜 렌즈를 통과하는 전자가 렌즈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만든다. ¹⁷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면 코일에서 발생 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전자가 받는 힘이 커져 전자빔이 더 많이 휘어지면서 초점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¹⁸대물렌즈의 초점 거리가 작아지면 현미경의 배율은 커진다. ¹⁹따라서 광학 현미경에서는 배율을 바꿀 때 대물렌즈를 교체하지만 전자 현미경에서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배율을 마음대로 ㉢ 조정할 수 있다. ²⁰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전자가 받는 힘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 점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광학 현미경에 비해 초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²¹전자 현미경은 고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현미경의 내부는 기압이 대기압의 1/1010 이하인 진공 상태이어야만 한다. ²²전자는 공기와 충돌하면 에너지가 ㉣ 소실되거나 굴절되는 등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²³또한 절연체 시료를 관찰할 때 전자 빔의 전자가 시료에 축적되어 전자빔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 ²⁴이 때문에 보통 절연체 시료의 표면을 금 또는 백금 등의 도체로 얇게 코팅하여 사용한다.

²⁵광학 현미경에서는 실제의 상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 현미경에서는 시료에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를 검출기에 집속하여 상이 맺힌 지점에서 전자의 ㉤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형태를 디지털 영상으로 나타낸다. ²⁶이러한 전자 현미경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한 검출기 및 주변 기기를 장착하여 전자 현미경의 응용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

* 회절 현상 : 파동이 작은 물체 주위나 작은 틈을 통해 휘어지는 현상.

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는 시료에 비추는 빛의 파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② 전자 현미경에서 진공 장치 내부의 기압이 높을수록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 ③ 전자 현미경에서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한 전자는 같은 점에 도달한다.
- ④ 전자 현미경에서 시료의 표면에 축적되는 전자가 많을수록 상의 왜곡이 줄어든다.
- ⑤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은 모두 시료에서 산란된 파동을 관찰하여 상을 얻는다.

5.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의 특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입자의 질량은 일정하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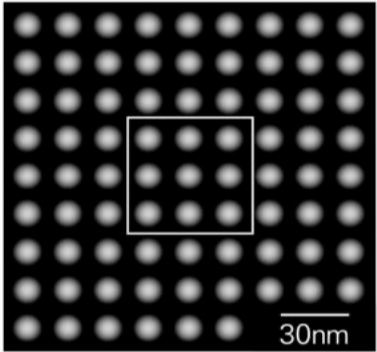
ㄱ.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길수록 전자가 전자 렌즈를 지날 때 더 큰 힘을 받는다.
 ㄴ. 전자의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상에서 에어리 원반의 크기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ㄷ. 전자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면 상의 해상도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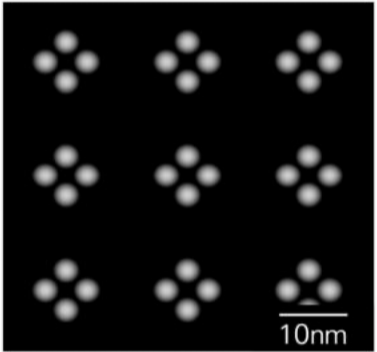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크기가 일정한 미세 물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구조를 전자 현미경으로 각각 찍은 사진이며 (나)는 (가)에서 사각형 부분에 해당한다.



(가)



(나)

- ① (가)의 해상도는 30nm보다 크다.
 ②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20nm보다 크다.
 ③ (가)에서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나)의 경우보다 크다.
 ④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은 (가)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보다 3배 작다.
 ⑤ (가),(나)에서 전자 현미경 내부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작다.

7. 밑줄 친 ㉠~㉥ 중 사전적 의미가 잘못 풀이된 것은?

- ① ㉠ : 모아서 묶음.
 ② ㉡ :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죽 벌여 놓음.
 ③ ㉢ :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도록 조절하여 정돈함.
 ④ ㉣ : 관리나 보관을 잘하지 못하여 잃어버림.
 ⑤ ㉤ : 여기저기 흩어져 퍼져 있음.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혜여** 보소서 <제2수>

추성 진호루 **빛기** **올어** 예는 저 시내야
 으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늬를** 모르나다 <제3수>

외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지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지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안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흔백(흔백)** 조차 **흘어지고**
 공산(空山) **촉루*** 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발근** 밤의 **두어** 소리 **슬피** 우러
 님의 귀에 들리기도 ㉢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한(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빛춰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한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저
빈 낙대 **빛기**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네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 조위, 「만분가」-

* 공산 촉루 : 텅 빈 산의 해골
 * 침변 : 베갯머리
 * 월중 소영 :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고신원루(孤臣冤淚)*를 한강에 가득 뿌려
 님 향한 **일편정(一片情)**을 참고 **참아** 떠나가니
 내 **맛** **이러** **홀** 제 **님이신들** **잇을** **쏟**가

호남(湖南)길 가려 잡아 **노령(蘆嶺)**에 **올**나 쉬어
북(北)쪽을 돌아보고 두세 번 **탄식(歎息)**하니
 뜬구름이 해를 가려 **경국(京國)**을 못 보리로다
 금성산 바라보고 유배지로 가는 중에
 남도(南道) 큰 마을 좋은 땅을 처음 보네
 주인 **정사군***이 마중 나와 반겨 주니
 거처(居處)도 과분하고 **의식(衣食)**도 **염려** 없다
 망라(網羅)의 **벗기신** 몸 이곳에서 누워 쉬니
 갈수록 **님의** **은혜** **도처(到處)**에 **망극(罔極)**하다
 정적들이 나를 죽이려 **화색(禍色)**이 **층격(層激)**하니*
 목숨이 위태로워 **조석(朝夕)**으로 **위급(危急)**일새
 ㉣ **먼** **섬으로** 유배 보내 **무리의** **노여움** **막으시니**
 끝내 온전케 하심 오늘이야 더욱 **알**다
 사방으로 힘을 **쓰**은 ㉤ **신하의** **직분(職分)**이라
 봉사하는 작은 수고 일컬을 것 전혀 없다
 전후(前後)로 베푸신 **은혜**가 **천자**보다 **빛나**시니
죄가 **영화**가 되니 이 더욱 **망외(望外)***로다
 (중략)

동방(東方)이 밝아 오매 소리하고 **돛**을 내려
 석기(石磯)에 배를 매고 **섬** 가운데 들어가니
 촌락(村落)이 **쓸쓸**하여 **수십** 호 **어가(漁家)**로다
 비바람 무릅쓰고 **초라한** **집** **찾아드**니
 지붕은 다 날리고 **죽창(竹窓)**에 **창호**지 없고
 물이 **샌** **평상**은 **마른** 데 전혀 없다
 한 **말(斗)**만 한 **좁은** **방(房)**의 **이** **벼룩** **많을**시키고
 팔척장신(八尺長身)이 **굽어** 들고 **굽어** 나며
 다리를 세워 누워 긴 밤을 새우나니
 배 안에서 **적신** **의복** 어느 불에 **말리**오며
 일행이 **기갈(飢渴)**한들 **무엇**으로 **구할**쏜고
 자루를 **떨어**내니 **쌀** 몇 **말**뿐이로다
 흰죽을 **쑤어** 내어 **둘러**앉아 **요기**하고
복물선*이 **도착**하기를 **일야(日夜)**로 **바라**더니
 남은 **액**이 **다**하지 **않**아 **바다**에서 **실패**하니
 죽을 **고비** 만 번 **넘**겨 **살아**남아 **다행**하나
살 **방법**에 ㉥ **대책** **없**으니 **어이**하여 **지탱**하고
 - 이진유,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

* 고신원루 :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의 원통한 눈물.
 * 주인 정사군 :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
 * 화색이 층격하니 : 재앙의 징조가 일어 티격태격하니.
 * 망외 : 바라거나 희망하는 것 이상의 것.
 * 복물선 : 짐을 실어 나르는 배.

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발화를 인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9.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아무'와 '임'은 모두 화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현재 상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갈등 상황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과 ㉡은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한 존재를 언급하며 현실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들의 작가는 사대부 신분으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유배를 당해 외롭고도 힘든 격리 생활을 체험하였다. 유배 문학은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충신연주(충신연주)나 우국의 심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정형화되지만, 때로는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거나 중앙 정계로의 복귀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 ① (가)의 '되'와 '물'의 속성과 (다)에서 '이 벼룩 많'은 '초라한 집'에 머무는 모습에서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그 빛그 여남은 일'과 (다)에서 '님의 은혜'에 대해 '망극'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은 중앙 정계로의 복귀를 소망하는 작가의 소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에서 '임금을 잊'으면 '불효'라고 언급하는 화자의 모습과 달리 (나)의 '슬피 우'는 화자의 모습에서, 충신연주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④ (나)에서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는 것과 (다)에서 '죄'가 '영화'가 되어 '망외'라고 언급하는 것에서 각각 화자의 이별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화자의 마음이 '어리'다는 것과 (나)의 '만장송'과 '매화'의 속성을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11.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덕궁'은 화자와 이별한 대상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빈 낙대'에는 사심 없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장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반기실가'는 예정된 미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을 달 밝은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헤어져 슬픈 처지와 미래 상황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를 묶은 것 중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작가가 처한 상황이 유사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감상은 다를 수 있다. 「울리유곡」의 화자도 정계를 떠나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다)의 화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상물이더라도 화자의 인식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헛글고 짓근 ㉠문서(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필마(匹馬) 추풍(秋風)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처럼 시원하라 <제10곡>
 「울리유곡」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¹어둠이 짙 깔려 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²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³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⁴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⁵그는 스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지를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⁶어머니 -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⁷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⁸그러나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⁹'이미 우리는 ㉡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¹⁰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¹¹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¹²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¹³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¹⁴클락슨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¹⁵정각에서 삼십 분 전. ¹⁶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¹⁷㉢ **클락슨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¹⁸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B] ¹⁹"연기는 안 돼. ²⁰생각해 봐. ²¹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²²그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²³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²⁴지금 우리들은 삼이

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²⁵알겠지? ²⁶어머니는 우리가 말을 떼다. ²⁷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²⁸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²⁹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³⁰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³¹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³²천장이 축 처져서 내려앉은 ㉠ 밤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³³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꿇어앉았다. ³⁴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³⁵“어머니…….”

³⁶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같았다.

³⁷“어머니, 의사가 왔됐어요?”

³⁸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³⁹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물어 보았다. ⁴⁰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켜다. ⁴¹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거리는 것 같았다. ⁴²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⁴³“왜 그러세요?”

⁴⁴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꼭 움켜쥐는 것이었다. ⁴⁵어머니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⁴⁶그리고 이미 시선과 손의 감각만으로써는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⁴⁷그는 가슴이 뭉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⁴⁸그는 순간 ㉡ 며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⁴⁹“언제 돌아오나?”

⁵⁰“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⁵¹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⁵²그리고 좀 돌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⁵³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를 거예요.”

⁵⁴“오냐.”

⁵⁵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C] ⁵⁶“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⁵⁷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⁵⁸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⁵⁹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⁶⁰그는 ㉢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다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⁶¹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⁶²그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⁶³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⁶⁴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⁶⁵㉤ 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어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⁶⁶정오가 가까워져서였다. ⁶⁷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 오상원, 「모반」 -

13. 위 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지금(2)’가 가장 나중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14.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보기>의 ㉠~㉣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가는 ㉢ 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6.[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17-19]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다어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굼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17.(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자기 반성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② ‘거울’을 닦는 행위를 통해 성실한 반성적 의지를 드러낸다.
- ③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에서 ‘거울’을 통해 마주한 현재 본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즐거운 날’의 상징을 통해 화자가 바라는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8.<보기>의 과점에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가)의 화자는 ‘거울’을 통해 본인의 삶을 성찰하고 이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본인의 의지를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새장 안에 있는 ‘새’의 모습에 주목하고 ‘새’의 행동을 본인의 시각으로 묘사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뿐 아니라 ‘운석’, ‘공기’, ‘바람’과 같은 대상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 ① ㉠에서는 ‘거울’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본인의 삶을 성찰하며 지난 삶에서의 부끄러운 행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운석’이 가진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꿈꾸는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과 ‘새’의 동질성을 통해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현재는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9.<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20-2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이전에 진 공이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다. 엄송의 가자(假子) 조문화는 진 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진 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 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송에게 사주해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다. 그 무렵에 다시 양적을 시켜 ‘진공이 사사로이 태원의 돈 삼십만 냡을 훔쳤다.’고 무고하게 했다. 그리고 금위옥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하게 했다. 조문화는 오 부인과 진 소저가 옛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종형 오 낭중이라는 자를 불러 놓고 말했다.

“진형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족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을 물어 둔 채로 덕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겠다. 들으니 그대는 형수와 인척이 된다 하더군.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그녀가 만일 효녀라면 스스로 거취할 방도를 필시 깨우치게 될 것이니라.”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예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오 부인은 크게 노했다.

“조가 도적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욕을 보이려 한다고?”

그러자 진 소저가 분연히 고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스스로 관비가 되기를 청하여 제 아버지의 죽

음을 면하게 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팔아 제 부모의 장사를 치르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신체발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친께서 중죄를 받을 형편에 놓이신 마당에 자식 된 자로서 ㉡어느 겨를에 일신의 욕과 불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 부인은 평소 소저의 빙옥 상설 같은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탄성을 발했다.

“슬프다! 총계정에서 학을 읊은 시가 족히 너의 성안(成案)이 되고 말겠구나.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의심할 리 있겠느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버지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이 나 하겠느냐? 옛 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을 걸어 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했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네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진 소저는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 오 낭중은 몹시 기뻐하며 조문화에게 돌아가 그녀의 말을 전했다.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엄송을 사주해 진 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게 했다. 이윽고 천자는 진 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운남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다.

(중략)

마침내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뒤 진 소저는 침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운 채 밤낮없이 영영 울고 있었다. 그때 조문화의 가인(家人)들이 속속 찾아와 진 소저에게 혼인을 재촉했다. 진 소저는 유모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했다.

“방금 부모님을 작별했으므로 정회가 망극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일 정도를 보내면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연후에 성례하면 좋을 듯합니다.”

조문화의 가인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않았다. 조문화가 말했다.

“인정상 본디 그럴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

사오일 뒤 조문화는 시비로 하여금 진 소저를 찾아가 살펴보게 했다. 진 소저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놓고 일렀다.

“슬픔으로 심란하던 차에 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 이제는 마음도 추스르고 병도 조섭하여 속히 쾌차한 후에 부모님을 살려 주신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그런데 지금 바깥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내 마음이 편하질 않구려.”

그 사람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조문화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조문화는 몹시 기뻐했다.

“진실로 뛰어난 효녀로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 뜻에 순종하여 화를 돌우게 하지 마라. 앞으로도 모름지기 매일 문밖에서 동정을 살피되 집 안에는 다시 함부로 들어가지 말거라.”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

그 이튿날에도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를 찾아갔더니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몹시 놀
랍고도 의아하여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 소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소저고 대저고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무안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20.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 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 안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② 조문화의 아들은 진 소저와의 혼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금 해하지 않고 혼사가 진행될 것임을 확신했다.
- ③ 조문화는 진 소저의 부모가 떠났다고 하여 아들과 진 소저의 혼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④ 진 소저는 부모님과 이별로 인한 슬픈 감정을 조문화의 가인에게 직접 표현했다.
- ⑤ 운섬은 진 소저와 함께 밤중에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났다.

21.[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는 청자와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 ② [A]는 지난 일을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B]는 이전에 쓰인 글을 떠올려 청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
- ③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B]는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여 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 ④ [A]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전하고,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낸다.
- ⑤ [A], [B] 모두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22.<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임금과 신하의 권력 관계가 역전된 정치적 구조에서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으로 드러난다.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사리 판별을 돕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 ① 진 공이 옥에 갇히고 귀양을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군.
- ② 조문화가 성사시키려 한 혼인 문제로 진 공의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니,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진 소저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적극적 인물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④ 오 낭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사리 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유모가 조문화의 가인과 시비에게 말을 전하고 진 소저와 함께 남장을 하는 정황을 보니, 주변 인물이 적극적 인물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3.문맥을 고려할 때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 ② ㉡ : 없는 자가 찬밥 더운밥을 가리랴.
- ③ ㉢ :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
- ④ ㉣ :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
- ⑤ ㉤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